

海外研修를 마치고

朴 澤 奎
(建國大 教授)

해마다 전국 각지의 대학(교)에서 많은 교수들이 연구교수로 선발되어 국비로 해외에 파견되고 있다.

이러한 국비해외파견 연구교수제도는 벌써 5년째 접어들어 전국의 각 대학으로 그 선발범위가 확대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정부가 대학교육의 질적향상과 내실화를 위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이 제도는 대학교수의 개인적 연구능력 함양과 연구의욕 고취는 물론, 선진 외국의 우수 대학이나 연구소에 파견되어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연구 방법을 몸소 터득하고 해외 학자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학문의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학자의 올바른 자세를 정립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고 믿는다. 나아가서 새로운 학문동향에 접하고 풍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것을 귀국후 활용함에 따라 강의의 충실화는 물론, 대학내의 년학분위기 고조에도 크게 기여하는 바 있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1981년도 파견계획에 따라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 말에 걸친 1년동안 미국 동북부, 독립의 발상지인 필라델피아 소재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화학과에 연구교수로 파견되었다. 1년의 해외파견 동안 겪었던 일들 중에서 느꼈던 바나 혹은 앞으로 파견될 교수들을 위해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을 모아 해외체류기를 집필하여 달라는 편집자의 요구에 따라 내가 경험했던 일들

을 몇자 적어 보고자 한다.

I. 학교 선정

학교선정은 1년간의 연구생활을 가장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다. 과거 해외 유학 또는 해외연구의 경험이 있는 교수들은 선정대상을 자기 나름대로 과거의 연고대학이나 연구소로 택하거나, 또는 그 밖에 최근 연구정보 교환경험 등을 토대로 택하게 되겠지만 그러한 경험이 없는 교수들은 다른 방도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 우선 연고관계가 있는 친지 또는 그밖의 사람들이 추천하는 대학교나 연구소를 선택하든지 자신과 학문교류를 지속하였던 대학, 기관 또는 개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미국내 대학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학계와 학사일정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미국의 학제가 9월 가을학기는 우리나라의 1학기에 해당되며 12월 22일경에 기말시험이 끝나면 1월 8일경까지, 말하자면 짧은 겨울 방학이 시작된다. 그리고는 2학기에 해당하는 봄학기가 시작되어 4월말경에 기말시험 그리고 5월 초가 되면 학부 재학생들은 긴 여름방학을 즐기거나 각자 아르바이트를 위해 캠퍼스를 떠난다. 학교마다 보름 정도의 신축성은 있으나 어쨌든 5월 중순경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졸업식마저 끝내고 교수들은 여름휴가 동안 미국내 다른 지방의 대학 또는 연구소, 그리고 세계 각국에 초청

되어 세미나, 학술회의 등에 참석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문교부 선발이 최종확정된 이후에 연구 대상교 선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대학 특유의 학사력을 감안하여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리라 믿는다. 특별히 연고가 있는 대학교가 없으면 본인이 자기 연구와 유관한 교수가 있는 대학이나 그 분야에서 시설등이 특별한 대학, 연구소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이력서, 연구업적, 참고자료 등을 해당 학과의 학과장 또는 해당교수에게 발송하여 공동연구의 의사를 타진하면 된다. 이때 반드시 왕복여비와 연구 및 체재비 등 제반 경비를 우리정부가 지원한다는 사실을 명기하여 대상교의 협력, 지원범위를 명시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점은 특히 국비로 파견되는 경우에 교수자신의 궁지와 품위에 관련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 국가의 위신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세심 강조하고 싶다. 상대방 학자로부터 정중한 내용이 담긴 서신과 자기의 소개 및 연구업적 등이 오면 그것을 토대로 비교하여 공동연구자 및 대상교를 비로소 선정하게 된다.

필자의 경우에는 펜실베이니아대학교 화학과의 과 교수회의에서 몇 사람이 공동연구 의사를 밝혔고 그중 한 교수가 서신과 함께 자기의 이력서, 연구업적 및 논문 별쇄본 상당량을 발송해 와서 이곳을 떠나기 전에 미리 서로의 연구영역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본인 스스로의 학교 선정이 끝나면 공동연구 교수에게 그러한 뜻을 밝히는 서신을 발송하게 되며 그 다음 대학마다 설치돼 있는 국제교류협력부서에서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오게 된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경우에는 International program office 라는 부서가 설치돼 있고 여기에서 외국유학생들에 관한 업무는 물론 초빙학자의 필요서류등을 작성, 비치하고 또 해당 외국인 교수에게 발송하게 된다.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인 IAP-66에는 visiting scholar 또는 visiting professor 로 명시되는 것이 통례이다.

II. 주거결정

가족을 동반하거나 혹은 혼자 생활하거나 주

거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친지를 통하여 미리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전에는 교수들을 위한 숙소가 많이 이용되었으나, 근래에는 각 대학마다 기숙사 시설이 학생수요에 미흡한 실정이어서 학교기숙사에 입주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필자의 경우에는 학교 가까이 일반 아파트를 빌어서 1년간 생활하였는데 대개의 경우 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의 월세는 최근 매년 15% 정도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뉴욕 브롱스지역에서 1년간 가족과 함께 생활한 동료교수의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아파트로 치면 30평 정도로서 월세가 650불인데 놀랄 만한 것은 부동산업자의 소개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관리인을 통해서 구해도 소개료로 650불을 따로 지불해야 하므로 결국 1년간 월세평균이 700불이라는 이야기이다. 최근 5년 동안 미국의 물가가 매우 올랐다는 것은 현지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이지만 특히 아파트 월세도 과거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폭등하고 있다. 도시 학교 근처의 아파트도 월세가 대개 300불 이상이며 그것도 조건이 좋은 경우에 가구도 제대로 비치돼 있다. 그 밖에 전기료, 가스료, 전화료 등 어느 것이나 근점 절약하지 않고는 과다지출로 항상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게 된다.

주거가 결정되면 집주인과 공동 싸인하는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 보아야 한다. 일정한 형식에 따른 부동산 임대 계약서인데 거기에는 전기료, 가스료 지불관계 등이 명시돼 있고 겨울철 난방 온도 예컨대 방안의 온도를 65°F로 주인이 유지해야 된다는 항목도 있다. 하나 하나 자세히 읽어 보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떤 아파트의 경우에는 1개월 월세를 더 예치하는 외에도 Security 용이라고 해서 1개월 분을 더 예치하는 경우가 있다. 말하자면 아파트를 떠날 때 가구, 집기 등이 파손되지 않았나 점검한 후에 이 돈을 반환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열쇠를 주면서 5불 정도 따로 예치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방안에 못을 하나 친다고 해서 5불을 지불해야 하는 일도 있다. 못 구멍을 한번 뚫은 값으로 5불을 지불해야 하니 우리 식으로 아파트벽에 칼렌더 걸고, 액자 걸고 동등 하다 보면 아파

트를 떠날 때 정말 수신품을 보증금에서 고스란히 빼앗겨야 하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는 다행히 전직교수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여서 아파트를 떠날 때 점검하는 일도 없었고 미리 지불한 반달치에 해당하는 보증금도 마지막 달 월세로 대체해 주는 호의를 베풀어 주었고 특히 1년간의 채류기간 중 의자 등이 잘못되면 즉시 관리인을 시켜 새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지금도 그러한 친절에 감사하고 있다.

Ⅲ. 연구생활

앞에서 이야기한 것 모두가 더 값있고 보람된 연구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며 분위기 조성이라 하겠다.

미국 도착 즉시 아파트정리와 함께 학교방문이 가장 급선무였다. 학교에 등교해서 일단 화학과장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학과장의 소개로 공동연구 교수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치밀한 계획하에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 그런지 학교를 방문한 그날 미리 배정된 연구실을 안내하였고, 그밖에 실험실을 할당해 주었다. 그리고 여비서를 불러서 앞으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당부까지도 곁들인다. 이제 이곳에서의 새롭고 활기에 찬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여비서의 안내로 학교건물 및 비품을 총괄하는 두개의 사무실로 간 일이었다. 먼저 방에서는 나이가 제법 든 행정요원이 무게가 제법 나가는 열쇠를 내게 주었고 그 다음 방에 가니 사무용품, 학용품 등을 배급하는 젊은 여사무원을 소개해 주었다. 내게 열쇠에는 연구실, 책상설합용 열쇠가 있었고, 나머지 두개 중 하나는 화학과 도서실 열쇠, 그리고 하나는 화학과 전진물의 유일한 현관 출입문 열쇠였다. 실험에 필요한 시약은 따로 신청해서 공급받았고 학용품 등도 필자의 사인 하나로 언제나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었으며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연구실, 실험실, 도서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건물 현관 열쇠도 소지할 수 있었다. 어떤 때는 토요일 오후 학부 학생들이 화학과 전용도서관 이용을 위해 현관

에서 머뭇거리면 문을 열어주어 함께 들어가는 친절도 베풀 수 있었다.

공동연구 교수가 연구비를 어느 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각 연구실의 연구내용이 광범위하게 되고 연구활동도 활발하게 된다. 따라서 함께 연구할 교수의 내내외적인 학문적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필자는 공동연구 교수와 함께 9명이 하나의 교실원으로 소속되어 연구와 실험을 계속할 수 있었다.

대학원 강의물 수강하였고 학부 강의의 내용이 나 강의 방법, 강의 분위기 등을 알기 위하여 기회있는 대로 학부 강의도 청강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매주 수요일 저녁식사 후 2시간정도 진행되는 교실 세미나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함께 발표하고 토론하였으며 월 3회정도 있는 초빙세미나에도 반드시 참석하였다. 이 초빙세미나는 미국내 대학, 연구소 등을 비롯하여 각국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나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던 학자들을 초청하여 특별히 실시하는 것이어서 흥미있는 내용들이 많았다.

화학과는 1974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시설들이 현대화되어 여러 면에서 크게 도움을 받았으며 학교 공보물을 통하거나 초청장을 받아서 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세미나에도 비정기적으로 참석할 기회를 많이 가졌다. 박사과정의 젊은 대학원생들이 밤늦게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고 주말에 놀지도 않고 계속 연구와 실험에 온 정열을 불사르고 있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크게 감명을 받은 바 있다. 학문하는 자세 그리고 학문을 천직으로 삼고 묵묵히 열과 성을 다하는 집념은 양의 동서를 불문하고 어디서나 찾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숭고한 마음가짐이 자신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서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Ⅳ. 교민사회와의 유대

필라델피아는 미국 5대도시 중의 하나로서 미국 대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는 흑인 문제, 실업문제 등이 외국인 눈에 역력하게 드러

나 보이고 있는 실정이었다.

거의 4만명에 가까운 우리 교민이 살고 있는 곳이어서 시내 중심가를 걸으면 언제나 한국 교포들과 마주치게 된다. 시내의 교포 경영의 금은상, 가방가게 등이 눈에 띄고, 특히 노점에서 과일 또는 가방을 팔고 있는 교포들을 만나면 연민의 정을 많이 느끼게 된다. 더우기 학교 캠퍼스내 또는 근처에 있는 네 곳의 과일 노점상인이 교포들이어서 그들이 살아가려는 의지, 피나는 노력을 매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많은 교포들이 의사, 실업인 그 밖의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해 놓고 있어서 매우 흐뭇하게 느껴졌다.

필자는 아내와 함께 때때로 교포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 자녀의 취학문제, 가정교육문제 등에 관해 조언하였으며 매주 필라 한인연합교회에 나가서 보람된 시간을 교포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다. 최근 4,5년 동안 가족이민으로 온 분들 중에는 상당수의 교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점상, 그밖의 상업을 통하여 꾀꾀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특히 과일 노점상인 경우 수입이 상당히 좋은 반면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는 고역이 매일 계속되고 있었다. 다른 민족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과일 소매상을 한국인들이 그 부지런함 하나로 해내고 있어서 미국대도시 곳곳의 청과물시장은 한국인들이 차례차례 점유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도시 아닌 소도시 주변에도 교포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초청받아 방문하게 되면 완전히 미국화돼 버린 교포2세들에게 가지고 간 책자, 그림 등을 보여주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상을 자세히 설명하곤 하였다.

그리고 그 지역 미국인들과도 접촉하여 한국에 관한 이야기등을 들려주면 교포들이 매우 반가워하는 것이 꼭 인상에 남았다. 가능하면 최근 발간된 한국 소개 책자를 가지고 가거나, 현지공관에서 입수하여 교포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우리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 주어서 그들의 머리속에 잘못된 한국관이 뿌리 박혀 있다면 송두리째 뽑아 버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단기간 여행하는 모든 한국인들이 지녀야 할 자세이며

그러한 면에서 우리 모두가 홍보 역군이라는 사명감을 깊이 지니게 된다. 특히 유학생들과의 유대강화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펜실베니아대학교와 캠퍼스가 인접한 드렉슬대학교를 합쳐 교포 학생수는 수백명에 이른다. 그들 중에는 교포 2세도 있어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점심시간 또는 휴식시간에 학교식당이나 학교잔디에 앉아 고국의 이야기, 장래문제 등을 기탄없이 토론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들에게 또 다른 값있는 일을 했다는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

특히 필자가 도착해서 얼마 지난 다음 펜실베니아 대학교 한인 기독교 학생모임에서 초대하여 갔더니 수십명의 남녀대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 말이 서투른 여학생이 더듬거리는 말씨로 기도를 올리고 또 함께 찬송가를 불렀던 기억이 지금도 가슴에 메아리쳐 와 닿는 느낌이 든다. 어떻게 보면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곤 한다. 유학생들에게 우리 고유의 사고방식,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계승하여야 할 한국적인 윤리관 등을 기회있을 때마다 일깨워 주고 설명함으로써 그들에게서 공감을 얻은 바도 있다. 내년 여름방학 중에는 미국인 친지와 한국인 동료의 자제들이 몇사람 우리 집을 방문해서 우리 가족과 함께 몇주 동안 뜻있는 나날을 보내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같이 교민사회와의 유대강화는 현지교민 뿐 아니라 유학생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더 넓게 더 뿌리깊게 다져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필자는 지난 12월초 어떤 회사에 초빙받아 남녀 종업원을 상대로 교양강연을 한 일이 있다. 80% 이상이 중졸 또는 고졸 학력의 여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회사의 강당에 모여 있는 150여명의 남녀 종업원들에게 전반부에는 과학 이야기를 한 다음 후반부에 일반적인 교양에 관해서 몇 가지 필자의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주머니 속에서 토론 주머니를 꺼내 보이면서 필자는 이 지갑은 필라델피아 중심가의 길가에 있는 교포 노점상에서 값싸게 구입한 것이며 이 안에는 버스트론이 항상 충분하게 들어 있다고 했다. 모두들 의아해 하는 표정이었으나 필자는 다

음 말을 계속 이어 그들의 의아심을 풀어 주었다. 이 토큰지갑 속의 토큰은 10원을 절약한다는 마음가짐에서 출발된 것인데 미국체류 1년동안 이러한 생활습성을 그대로 고수했다는 이야기이다. 뉴욕지하철은 75센트 짜리 토큰을 사서 넣어야 대합실문이 열리고 버스인 경우 승차료가 75센트 현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필라델피아의 시내 버스나 지하철은 동전 70전을 넣으면 승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70센트 동전을 운전석 옆 동전 넣는 박스에 넣으면 빨간 불이 켜지면서 소리가 나게 마련인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흔한 25센트짜리 동전 3개를 박스에 넣기 마련이다. 물론 거스름돈이 나오리 없다. 필자는 언제나 5센트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25센트, 10센트, 5센트 동전을 국산 토큰주머니에 틱톡 넣어 갖고 다녔다. 산업의 역군인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귀중한 의화를 한푼이라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발로였다고 스스로 자부한다고 기열을 토했던 것이다. 미국 거지에게 한 푼의 동냥도 주지 않고 지내 온 마음도 바로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더니 장내가 매우 숙연해지는 것이었다. 한푼의 외화도 낭비하지 않

고 아껴 써야겠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온국민 모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 하겠으나 특히 지도적 위치에 있는 우리 대학교수가 해외여행중 또는 해외 체류중 보여 주어야 할 당연한 행동규범이라 믿는다.

미국은 매우 넓고 자원이 풍부하고 앞선 나라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데 파견기간 동안 가능한 대로 많은 대학과 연구소의 시설들을 두루 살펴보고 학자들과 토론할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연구의 흐름을 파악한다든가 최신 연구정보등을 수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연구시설을 직접 보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필자는 미국체류 1년 동안 나름대로 파견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며 이번 학기 강의를 통하여 지난 1년 동안의 연구생활에서 얻은 것이 얼마나 많았었나를 직접 감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기회가 주어졌던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비해외파견 연구교수제도가 더 확대되어 많은 교수들에게 그 혜택이 고루 확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